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수신: 각 상담소 및 연대단체

발신: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제목: 방글라데시인 '우스만'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변경과 상담사례모임에 관한 건

2월 2일로 예정되었던 '우스만'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상황의 변황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자회견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등록번호	구분	일련번호
WS	A	108
	3-6	

방글라데시인 오수만씨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및 외국인 노동자 벌금제도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

시간 : 1996년 2월 3일 토요일 09시

장소 : 법무부 기자실 (과천 종합청사내)

기동2회차 7층 NCC 사무실

'우스만' 사망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결과 의혹사항이 많으며, 이번 사건은 '불법체류자 벌금'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외국인노동자들 벌금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벌금제도의 철폐를 위한 연대 투쟁이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상담소에서는 외국인들의 벌금문제에 관한 사례를 모아주시고 시급히 PC통신을 이용하여 화일을 넣어주십시오.(통신이 가능하지 않으면 팩스도 무방합니다.)

사례1) 최근 벌금을 내고 출국한 외국인 사례를 통하여 출입국의 벌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징수방식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 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사례2) 벌금때문에 본국에 가고싶어도 가지 못한 사례

위의 내용에 대한 문의나 사례를 보내 주실때는

성남외국인 노동자의 집 전화 0342-756-2143-4

팩스 0342-758-4628

통신 ID : HITEL smwh

방글라데시 인 오수만(OSMAN)씨 의문사에 대한 외노협 조사보고서

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은 1월 18일경 방글라데시 대사관으로 부터 오수만씨의 자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 받았다. 대사관은 경찰서 공문을 발송하여 주며 몇가지 의문점을 표시하였다. 자살한 이유에 대하여 알수 없으며 경찰서 공문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이에 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은 외노협과 협조하여 자체 조사반을 편성하여 본사건을 조사하게 되었다. 이후 조사반은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알 수 있었다.

1. 부평 경찰서의 발표

초기 경찰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외노협 조사반의 조사내용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발송공문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발신: 부평 경찰서 (1996. 1. 18)

수신: 방글라데시 대사관

1. 발생일시 및 장소

1996.1.17. 08:15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5의5 장수산 1부능선

2. 변사자인인적사항

국적: 방글라데시

주소: 불상

성명: 오수만 (MD. OSMAN) 생년월일 1962. 6. 10생. 남자

입국일자 : 1992. 3. 27. 여권번호 H / 01724

3. 발생개요

변사자는 1994.4월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51 소재 00금속이란 공장내에서 공원으로 일해 오던중 줄하쉬(방글라데시, 변사자 사촌동생)와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줄하쉬는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되고 변사자는 어깨에 통증을 호소해 부평성심의원에서 진료한 결과 쇄골 골절상으로 동소 305호실에 입원치료다가 1996. 1. 17. 00:30경 위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인근 야산 소나무에 나 이론끈으로 목을 메어 자살한 것을 같은날 08:15경 발견자 이용만(당40세.남)이 회사에 출근하다가 발견한것임.

4. 기타

변사자에 대한 타살혐의점 없는 자살한것으로 추정되어 그사체를 인도코져 하오니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5. 담당자

부평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근무 경장 윤 태 원

의문 1)

위의 공문내용에서는 어깨의 통증(경찰의 표현, 쇄골 골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경찰의 해명이 없다.

의문 2)

동증을 호소하여 병원까지 보낸 상황에서 오수만이 자살한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데 경찰은 부검도 하지 않고 자살로 추정(경찰의 표현)된다는 말을 하며 시신 발견 바로 다음날인 18일 아주 신속하게 공문을 대사관에 발송하여 시신을 인도하라고 하고 있다. 경찰이 이렇게 급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외노협 조사반은 위의 두가지 의문사항을 가지고 조사에 착수 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밝혀려고 하지 않았던 문제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래는 조사반이 방글라데시 대사관 행정관 타시르씨와 함께 출입국에 있는 줄하시와 병원 영안실의 오수만, 그리고 일하던 공장과 사용한 숙소등을 현장조사하고 부평경찰서 서장의 협조로 사건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을 조사한 내용이다.

(1) 부평경찰서 조사(1월 29일 1시~5시)

외노협 조사반: 이해학 목사, 김해성 목사, 최정규 (외노협 집행위원장),
진근화 (성남외노집 간사)

면담인: 경찰서장, 보안과장, 형사과장, 형사3반장, 의사과 직원, 정문근무 의경 등

1 경찰서장

외국인 변사 사건을 알고 있다. 의혹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보인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다. 보안과장에게 의혹이 없도록 잘 설명하라고 지시하여 보안과장과 함께 의사계 사무실과 화장실등을 둘러봄.

2. 의사계 윤 원

자신이 오수만과 줄하시를 조사하였다. 두사람을 1월 16일 아침에 청천 파출소로 부터 인계 받았다. 두사람이 싸워서 연행하였으나 심한 싸움이 아니었고 양쪽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불법체류자 이기에 출입국으로 인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줄하시는 턱밑에 찢긴상처가 있었고 <오수만은 아픈것 같아서 아프냐고 물었더니 아프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윤형사는 자기 보기에 얼굴이 아파 보여서 공장장을 오라고 하여 신병을 인도하여 치료를 위해 병원에 보냈더니 검진 결과 쇄골 골절이 밝혀져 입원토록 조치하였다>

이때 조사반이 줄하시의 전술을 인용하여 오수만이 화장실에서 뛰어 내려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는가 라고 질문하였다.

윤 형사는 화장실에서 뛰어내린 사실은 모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보내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찾아보니 없어서 경찰서 정문쪽으로 가는 것을 창문에서 목격을 하여 정문쪽에 있었던 직원들에게 잡으라고 하여 잡아온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때 조사반이 "잡아온 시각과 잡아 온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질문하였다.

윤형사는 잡아온 시각도, 잡아온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때 조사반은 당시 경찰서 정문근무 의경등을 만날 수 있도록 경찰에 협조요청

3. 사건당일(1월16일) 경찰서 정문근무자 상경 박**, 박**

당시 3층에서 "잡아라! 잡아라!"라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정문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가장 가깝게 있었던 입초근무자 박** 상경은 부평경찰서로 온지 얼마되지 않아 직원들의 얼굴을 잘 모른다. 두사람이 외국인을 잡아가는 것을 보았으나 정문차량 정리를 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옷차림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진술.

4. 형사계 3반장 이**경위

파출소에서 인계받아서 의사계로 넘겼다. 변사사고 신고가 있어 나가보니 자신이 몇일전에 파

출소에서 인계받았던 외국인임을 확인하였다. 병원에서 탈출하였던 일이 있었고 외형상 타살 흔적이 없고 자살이 뚜렷하여 검사 지휘를 받아 자살로 판정하였다.

조사반은 왜곡이 부러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질문하였다.

최형사는 "내 추측에는 3층화장실에서 뛰어 내릴때 어깨뼈를 다친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때 조사반은 3층에서 오수만이 뛰어내린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다고 질문하였다.

최형사는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았고 직원들이 지금 없어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조사해 보겠다." 이후 경찰은 다음날 오수만이 뛰어내리는 장면을 목격한 구두떡는 사람이 찾았고, 경찰서 본관 뒷편에서 나오는 오수만을 본 의경의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연락이 왔다.

위의 경찰조사 결과 경찰은 오수만이 화장실 3층에서 뛰어 내렸다는 사실, 또는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나 외사계와 형사계의 진술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은폐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본 조사반이 전문의에게 오수만의 부상부위를 의뢰해 본 결과 "왜곡뼈가 추락에 의하여 부러졌다면 3조각으로 부러지기 힘들다."라는 소견을 받을 수 있었고, 시신의 골절부위의 피부는 길이 3센치정도의 타원형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일관되지 않은 경찰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다음으로 오수만의 자살이유에 대하여 본 조사반은 경찰의 설명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사반은 부평성심의원에 함께 갔었던 줄하시와 공장장을 통하여 오수만과 병원에서 대화를 하였던 하킴이란 사람을 찾았으며 마침내 하킴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하킴의 진술내용이다.

하킴 진술 (1월 31일)

오수만은 1월이 되어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들이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오수만은 공장이 11월경 부도가 나서 3개월동안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했다. 오수만은 월급문제와 아들의 사고로 괴로와 하였고 방글라데시에 가기를 원하였다.

1월 14일 알롬과 줄하시 그리고 오수만이 함께 동인천 상담소를 방문하였고 출국문제를 가지고 상담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15일 하킴은 오수만과 다시 동인천 상담소를 방문하였고 오수만은 조세핀과 인천출입국으로 갔다. 출입국에서 오수만은 몸이 아프다고 하였다. 그러나 출입국은 "거짓말 하지 마라! 너는 벌금 200만원을 내야 한다."라고 하였다.

줄하시와 오수만은 아주 친한사이였고 평상시 둘은 말싸움 한번 하지 않았다. 둘사이에 금전문제는 없었으며 둘의 월급은 하킴이 받아서 브로커를 통하여 본국으로 보냈다고 한다.

오수만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니 경찰 두명이 있었고 경찰은 하킴에게 "너도 불법체류자지!"라고 하며 위협 하였다고 한다. 하킴은 오수만에게 가서 어깨가 왜 다쳤는지 물어 보았다. 오수만은 "경찰서 3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렸다."라고 말하였다.

오수만과 대화를 하고 나오니 공장장이 병원비가 없다고 하여 줄하시가 가지고 있었던 100만원을 빌려서 입원비를 지불하였다. 그사이 오수만은 병실에서 사라졌다.

이후 하킴과 방글라데시 친구들 그리고 경찰은 16일 밤 12시까지 청천동 일대를 찾았다. 결국 오수만은 찾지 못하였고 다음날(17일) 오수만은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18일 하킴의 숙소로 인천출입국 직원들이 방문하여 하킴을 잡겠다고 하였다. 마침 하킴의 조카가 있어서 출입국 직원들을 만났으며 그 사이에 하킴은 방에서 도망나왔다고 한다.

본 조사반은 오수만의 죽음이 있기 까지 법무부의 벌금제도가 주효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3개월의 체불입금과 아들의 사고로 괴로와 하며 조속히 돌아 가고자 하는 오수만에게 200만원의 벌금(아직도 일하던 공장에는 100만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은 장벽이자 족쇄였고 오수만을 죽음에 이르게한 주범중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하킴의 진술에서 "인천 출입국 직원이 찾아 와서 '하킴을 잡으러 왔다. 어디 있느냐?'고

불법체류자인 조카에게 물었으면서도 같은 불법체류자인 조카는 그대로 둔 채 가 버렸다는 사실은 필요에 따라 변칙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요구

1. 오수만은 경찰초소에 자진신고를 했고, 파출소를 거쳐 부평경찰서 외사계에 갈 때까지는 다치지 않았음이 확실하고, 부상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임이 분명하다. 왜 쇠골 골절이 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2. 경찰은 오수만이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해 뛰어 내리기 까지 보호를 소홀히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음을 밝혀야 한다.
3. 또한 부검도 없이 사인을 일방적으로 자살로 단정하고 조기에 사건을 수습하려고만 했던 이유를 밝혀야 한다.
4. 금번 오수만의 사망 사건의 전말에 대해 경찰청장은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5. 법무부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비인간적이고 현실성없는 벌금제도를 즉각 철폐하여야 한다.
6. 법무부는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들로 부터 징수한 벌금의 액수와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93년 한해 동안 100억 3천 만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다)